

2025
중2-1
미래엔

2025 중2-1 국어 미래엔 | 1(1) 년 바보다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시에 사용된 수사법이 무엇이며 그 수사법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시에 사용된 수사법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표현상의 특징도 함께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씻던 땀을 아무 데나 튼, 땀지 못하고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으로 달려가는
㉠ 너는 참 바보다.
개구멍으로 쏙 빠져나가면 금방일 것을
비잉 돌아 교문으로 다니는
너는 참 바보다.
얼굴에 검댕 칠을 한 연탄장수 아저씨한테
쓸데없이 꾸벅, 인사하는
너는 참 바보다.
호랑이 선생님이 전근 가신다고
계집애들도 흘리지 않는 눈물을 찔끔거리는
너는 참 바보다.
그까짓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민들레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 바라보는
너는 참 바보다.
내가 아무리 거짓으로 허풍을 떨어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머리를 끄덕여 주는
너는 참 바보다.
바보라고 불러도 화내지 않고
씨익 웃어 버리고 마는 너는
정말 정말 바보다.

—그럼, 난 뭐냐?
그런 네가 좋아서 그림자처럼
네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나는?

- 신형건, <년 바보다>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친구의 어리석은 행동을 관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시다.
- ② 겉보기에는 모순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사실이나 진리를 담은 표현이 쓰였다.
- ③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대되게 나타내어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이 쓰였다.
- ④ 사회의 부정적 현상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웃음을 사용하는 표현이 쓰였다.
- ⑤ 화자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에 드러나지 않아서 화자의 마음을 알 수 없다.

2. 윗글에 드러난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4음보를 일정하게 반복한다.
- ② 청유형 어미의 반복으로 의미를 강조한다.
- ③ 화자의 마음을 2연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 ④ 의성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준다.
- ⑤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한다.

3. ㉠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속마음과 ㉠의 표현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화자의 속마음	㉠의 표현 방법
①	“너는 좋은 아이야”	역설
②	“너는 좋은 아이야”	반어
③	“너는 정말 바보야”	반어
④	“너는 좋은 아이야”	모순
⑤	“너는 정말 바보야”	역설

4. 윗글의 ㉠과 같은 표현 방법이 사용된 것은?

- ①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 ②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 ③ 들로 가신 엄마 생각/ 책을 펼치면/ 책장은 그대

로/ 푸른 보리밭

- ④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5. ㉠과 같은 표현 방법이 밑줄 친 부분에 사용된 것은?

- ①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 <흔들리며 피는 꽃>

- ② 기인 한밤을
눈물로 가는 바위가 있기로
-박목월, <임에게>

- ③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유치환, <깃발>

- ④ 못나고 흠집 난 사과만 두세 광주리 담아 놓고
그 사과만큼이나 못난 아낙네는 난전에 앉아 있다
지나가던 못난 지게꾼은 잠시 머뭇거리다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한 천 원짜리 한 장 꺼낸다
파는 장사치도 팔리는 사과도 사는 손님도
모두 똑같이 못나서 실은 아무도 못나지 않았다
-조향미, <못난 사과>

- ⑤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말 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에 약산 /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김소월, <진달래꽃>

신유형

시의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 시가 쓰인 시대상을 묻는 문제, 시어가 의미하는 대상을 묻는 문제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작품은 시이기에 사용된 수사법과 시어가 의미하는 대상들을 파악하고, 시가 쓰

인 배경을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6~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씻던 땀을 아무 데나 뿜, 뺨지 못하고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으로 달려가는
너는 참 바보다.
개구멍으로 쏙 빠져나가면 금방일 것을
비잉 돌아 교문으로 다니는
너는 참 바보다.
얼굴에 검댕 칠을 한 연탄장수 아저씨한테
쓸데없이 꾸벅, 인사하는
너는 참 바보다.
호랑이 선생님이 전근 가신다고
계집애들도 흘리지 않는 눈물을 찔끔거리는
너는 참 바보다.
그까짓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민들레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 바라보는
너는 참 바보다.
내가 아무리 거짓으로 허풍을 떨어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머리를 끄덕여 주는
너는 참 바보다.
바보라고 불러도 화내지 않고
씨익 웃어 버리고 마는 너는
정말 정말 바보다.

—그럼, 난 뭐냐?

그런 네가 좋아서 그림자처럼
네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나는?

- 신형건, <넌 바보다>

(나)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건넌산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거늘 가슴이 꿈쩍
하여 풀떡 뛰어 내닫다가 두엄 아래에 자빠졌구나
모쳐라 날랜 나이니 망정이지 어혈 질 뻔했구나
- 작자 미상

6.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강한 어조로 화자의 주장을 드러내고 있다.
② ‘너’의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여 풍자하고

있다.

- ③ 담담한 어조로 화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있다.
- ④ ‘너’를 좋아하는 ‘나’의 마음을 질문하는 형식을 통해 고백하고 있다.
- ⑤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너’의 부정적인 모습을 강조하여 전달하고 있다.

7. (가)에서 ‘너’의 모습을 관찰하고 ‘나’가 얻은 깨달음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껌을 버리기 위해서 쓰레기통으로 달려가는 걸 보니 바른 생활 태도를 가져야겠구나.
- ② 가까운 개구멍 대신 멀리 있는 교문으로 돌아가는 걸 보니 시간을 아껴 써야겠구나.
- ③ 길가에 핀 민들레를 한참 바라보는 걸 보니 작은 일에 한 눈 팔지 않고 살아야겠구나.
- ④ 친구의 허풍에 속아 넘어가는 걸 보니 친구가 하는 말이 진실인지 항상 의심해야겠구나.
- ⑤ 바보라고 불려도 화를 내지 않는 걸 보니 친구의 잘못을 지적하는 용기를 가져야겠구나.

8. (가)를 읽고 ‘너’에 대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
- ② 망신스러운 상황에서도 허세를 부리는 인물이다.
- ③ ‘나’와 달리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④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여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다.
- ⑤ 섬세하고 감수성과 공감 능력이 풍부한 순수한 인물이다.

9.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같은 문장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상반된 어휘를 결합하여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③ 감탄형 문장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우의적인 방법으로 부정적인 대상을 조롱하거나 비판하고 있다.
- ⑤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반대로 표현하여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10. (나)를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꺼비’가 ‘백송골’로부터 ‘파리’를 보호하고 있다.
- ② ‘두꺼비’가 두엄 아래로 내려가 건넌산을 바라보고 있다.
- ③ ‘두꺼비’가 ‘백송골’이 두려워서 ‘두엄’ 아래로 뛰어내렸다.
- ④ ‘백송골’이 ‘두꺼비’를 넘어뜨려 ‘파리’를 지켜주고 있다.
- ⑤ ‘파리’가 목숨을 잃은 ‘두꺼비’를 보며 자신의 날쌔음을 자랑하고 있다.

11. (나)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정한 음보를 반복하였다.
- ② 의성어를 반복하여 사용하였다.
- ③ 같은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였다.
- ④ 같거나 비슷한 소리를 반복하였다.
- ⑤ 시의 처음과 마지막에 같은 문장을 사용하였다.

12. <보기>를 참고할 때 (나)에 등장하는 동물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이 시조가 지어진 조선 후기에는 백성들이 탐관오리들에게 큰 고통을 받았지요. 탐관오리들은 자신보다 더 힘이 있는 권력자에게는 아첨하거나 뇌물을 바치고, 힘없는 백성들은 못살게 굴었어요. 그러한 고통을 받은 백성들이 이 시조를 창작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시조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특정한 인물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요.

- ① ‘백송골’은 탐관오리보다 더 힘이 있는 권력자를 나타낸다.
- ② ‘파리’는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인다.
- ③ ‘백송골’은 힘없는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중앙관

리를 나타낸다.

- ④ '두꺼비'는 조선 후기에 중앙관리에게 고통을 받는 평민을 나타낸다.
- ⑤ '두꺼비'는 '백송골'에게 아침하거나 뇌물을 바쳐 '파리'를 보호하려고 한다.

13. (가)와 (나)를 비교하여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 ① 두 글 모두 화자가 대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 ② 두 글 모두 모순된 표현으로 진리를 나타내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속뜻과 반대로 표현해 의미를 강조한다.
- ④ (나)와 달리 (가)는 대상을 조롱하여 공격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⑤ (가)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고, (나)는 비슷한 글자 수와 음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한다.

【14~1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썩던 껌을 아무 데나 댄, 뱉지 못하고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으로 달려가는
너는 참 바보다.
개구멍으로 쏙 빠져나가면 금방일 것을
비잉 돌아 교문으로 다니는
너는 참 바보다.
얼굴에 검댕 칠을 한 연탄장수 아저씨한테
쓸데없이 꾸벅, 인사하는
너는 참 바보다.
호랑이 선생님이 전근 가신다고
계집애들도 흘리지 않는 눈물을 찔끔거리는
너는 참 바보다.
그까짓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민들레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 바라보는
너는 참 바보다.
내가 아무리 거짓으로 허풍을 떨어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머리를 끄덕여 주는
너는 참 바보다.
바보라고 불러도 화내지 않고
씨익 웃어 버리고 마는 너는

정말 정말 바보다.

—그럼, 난 뭐냐?

그런 네가 좋아서 그림자처럼

네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나는?

— 신형건, <넌 바보다>

(나)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건넌산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거늘 가슴이 끔찍
하여 풀떡 뛰어 내닫다가 두엄 아래에 자빠졌구나
모쳐라 날랜 나이니 망정이지 어혈 질 뻔했구나
— 작자 미상

14. (나)가 창작된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ㄱ. 백성들은 권력자에게 아침하고 뇌물을 바쳤다.
- ㄴ. 탐관오리들은 일반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혔다.
- ㄷ. 탐관오리들은 권력자에게 굴복하지 않고 저항했다.
- ㄹ. 탐관오리들은 권력자 앞에서 비굴한 모습을 보였다.
- ㅁ. 백성들은 자유롭게 권력자들을 비판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ㄷ, ㅁ ⑤ ㄹ, ㅁ

15.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말하고자 하는 바와 반대로 표현한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시적 대상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인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시적 대상을 동물에 빗대어 표현한다.

정답 및 해설

내신형 기출 문제

1. [정답] ③

1연의 '너는 참 바보다.', '정말 정말 바보다.'를 통해 사실은 '너'를 좋아하고 있는 '나'의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대되게 나타내어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이 쓰인 것은 적절하다.

① 겉보기엔 '너'의 행동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처럼 표현 되었지만, 사실은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너'의 따뜻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겉보기에는 모순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사실이나 진리를 담은 표현은 역설적인 표현이다. 이 시에서는 역설적인 표현이 아닌 반어적인 표현이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사회의 부정적 현상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웃음을 사용하는 표현은 풍자로, 이 시에는 반어적인 표현이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화자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2연을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 [정답] ⑤

이 시는 '~는 너는 참 바보다.'라는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① 4음보는 한 행에서 4번씩 끊어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시에서는 4음보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청유형의 문장이 사용되지 않았다.

③ 화자의 마음을 2연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졸졸'이라는 의태어는 사용되었지만 반복되어 사용되지 않았고, 의성어는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 [정답] ②

이 시의 ㉠은 '너는 참 바보다.'라는 시행으로 이 시

행에는 반어적인 표현이 담겨있다. 시의 화자는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너'의 여러 장점들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에 담긴 화자의 속마음은 '너'는 좋은 아이라고 생각하는 마음과 이를 반어적으로 표현하여 강조하였으므로 반어법이 사용되었다.

4. [정답] ②

윗글의 ㉠은 반어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에는 같은 반어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 해당 시행은 화자인 '나'를 보고 싶지 않아 떠나가는 대상을, 사실은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고 싶지 않은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②에는 ㉠의 '너는 참 바보다.'와 같은 반어법이 사용되었다.

① 해당 시에는 실제로는 떠난 님을 화자인 '나'는 보내지 않았다는 표현을 통해 역설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해당 시에는 '책장은 그대로/푸른 보리밭'이라는 표현을 통해 'A는 B다.'라는 은유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해당 시에는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라는 표현을 통해 '~처럼, ~같이'라는 직유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해당 시에는 '찬란한 슬픔의 봄을'이라는 표현을 통해 모순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역설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정답] ⑤

윗글의 ㉠은 반어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에는 같은 반어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 해당 시행은 화자인 '나'를 보고 싶지 않아 떠나가는 대상을 사실은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고 싶지 않은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⑤에는 ㉠의 '너는 참 바보다.'와 같은 반어법이 사용되었다.

① 해당 시에는 '어디 있으랴'라는 표현을 통해 설의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에서도 2연에서 설의법이 사용되기는 했지만 ㉠의 범위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해당 시에는 '눈물로 가는 바위가 있기로'를 통해 의인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해당 시에는 '소리 없는 아우성'을 통해 모순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역설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해당 시에는 '모두 똑같이 못나서 실은 아무도 못나지 않았다.'를 통해 모순된 말이 사용되었으므로 역설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정답] ④

이 시의 2연에서 화자인 '나'는 질문의 형식을 통해 직접적으로 '너'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강한 어조는 사용되지 않았다.

② '너'의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여 풍자하고 있지 않다.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었을 뿐이다.

③ 담담한 어조로 화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⑤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화자인 '나'가 대상인 '너'의 긍정적인 모습을 강조하여 전달하고 있다.

7. [정답] ①

이 시의 화자는 '너는 참 바보다.'라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너'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화자는 '너'를 통해 긍정적인 깨달음을 얻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1연의 '씻던 껌을 아무 데나 댄, 뱉지 못하고/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으로 달려가는/너는 참 바보다.'를 통해 화자인 '나'는 '너'의 모습을 보고 바른 생활 태도를 가져야 함을 깨달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② 가까운 개구멍 대신 멀리 있는 교문으로 돌아가는 걸 보고 화자인 '나' 역시 교문으로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적절하다.

③ 길가에 핀 민들레를 한참 바라보는 걸 보며 화자인 '나'는 세심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친구의 허풍에 속아 넘어가는 모습을 보며 친구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바보라고 불려도 화를 내지 않는 모습을 보며 밝고 수더분한 성격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다.

8. [정답] ⑤

시의 내용을 통해 '너'는 섬세하고 감수성과 공감 능

력이 풍부하며 순수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① '민들레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 바라보는 너는 참 바보다.'를 통해 작은 생명에도 관심을 가지는 '너'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이런 '너'의 모습을 통해 유추하면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모습은 적절하지 않다.

② '내가 아무리 거짓으로~정말 정말 바보다'를 통해 망신스러운 상황에서도 웃어넘기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③ 2연을 통해 '나'가 상대방인 '너'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시 전체적으로 '너'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너'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인지는 확인 할 수 없다.

9. [정답] ④

'우의적'이라는 표현은 말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돌려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시조는 이러한 표현으로 부정적인 대상인 '두꺼비'를 조롱하거나 비판하고 있다.

① 같은 문장이 아닌 일정한 음보와 일정한 글자 수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상반된 어휘를 결합하지 않았다.

③ 감탄형 문장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 변화를 드러내지 않았다.

⑤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반대로 표현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은 반어적 표현으로 해당 표현이 사용된 시는 (가)이다.

10. [정답] ③

(나)의 '건넌산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거늘 가슴이 꿈쩍하여 풀떡 뛰어 내닫다가 두엄 아래에 자빠졌구나'를 통해 '두꺼비'는 '백송골'이 두려워서 '두엄' 아래로 뛰어내렸음을 알 수 있다.

① '두꺼비'는 '백송골'로부터 '파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② '두꺼비'는 '건넌산'에 있는 '백송골'을 보고 두려워 '두엄' 아래로 내려갔다.

④ '백송골'이 '두꺼비'를 넘어뜨려 '파리'를 지켜주는 모습은 해당 시조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⑤ '파리'가 목숨을 잃은 '두꺼비'를 보며 자신의 날

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두엄' 아래로 떨어진 '두꺼비'가 날뺨으로 인해 목숨을 건진 것을 묘사하고 있다.

11. [정답] ①

(나)는 사설시조로 일정한 음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의성어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③ 같은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④ 같거나 비슷한 소리를 반복하지 않았다.

⑤ 시의 처음과 마지막 문장에 같은 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12. [정답] ①

<보기>를 참고하여 시조에서 가리키는 대상을 파악하면, '두꺼비'는 탐관오리를, '파리'는 힘없는 백성을, '백송골'은 탐관오리보다 더 힘이 있는 권력자를 뜻한다. 따라서 '백송골'이 탐관오리보다 더 힘이 있는 권력자를 나타낸다는 말은 적절하다.

② '파리'는 힘없는 백성이며, 해당 시조에서 '파리'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지는 알 수 없다.

③ '백송골'은 힘없는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중앙관리가 아닌 탐관오리보다 더 힘이 있는 권력자를 뜻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두꺼비'는 탐관오리를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두꺼비'가 '백송골'에게 아침하거나 뇌물을 바치는 것은 맞지만 그 목적이 '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13. [정답] ⑤

(가)는 '너는 참 바보다.'라는 시어의 반복을 통해, (나)는 비슷한 글자 수와 음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① (가)는 화자가 대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② 두 글 모두 모순된 표현으로 진리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③ 속뜻과 반대로 표현해 의미를 강조하는 것은 (가)이다.

④ 대상을 조롱하여 공격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나)이다.

14. [정답] ③

ㄴ. 탐관오리를 상징하는 '두꺼비'가 힘없는 백성을 상징하는 '파리'를 물고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ㄷ. '두꺼비'가 권력자를 상징하는 '백송골'을 보고 놀라 넘어지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ㄱ. '파리'는 '두꺼비'에게 물려있을 뿐, '백송골'에게 아침하고 뇌물을 바치지 않았다.

ㄴ. '두꺼비'는 '백송골'을 보고 놀라 넘어졌을 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ㄹ. '파리'는 '두꺼비'에게 물려있을 뿐, 자유롭게 권력자들을 비판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15. [정답] ④

(나)는 (가)와 달리 대상을 조롱하고 비판하려는 태도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① (가)는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와 반대로 표현하고 있다.

② (가)는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③ (나)는 '두꺼비', '파리', '백송골'과 같이 시적 대상을 동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⑤ (가)는 동일한 시어 반복을 통해, (나)는 음보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16. [정답] ④

ㄱ. (나)와 <보기 1>은 시적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비유하여 우회적이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ㄴ. (나)와 <보기 1>에는 풍자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을 조롱하고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ㄷ. (나)와 <보기 1>에는 풍자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풍자는 개인 또는 사회의 부정적 현상 등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웃음을 사용하는 표현이므로 적절하다.

ㄹ. 논리적인 모순은 사용되지 않았다.

ㄹ. 대상에 대한 애정이 아닌 조롱이 기반이 되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17. [정답] ⑤

㉠에서 화자인 '나'는 직접적으로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1연에서는 화자